



행복이 가득한 안전한 먹을거리

유병연 |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국장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272-12에는 (주)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농업회사법인이 있다. 이 회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사이다. 그 하나는 우수농산물(GAP) 인증기관으로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번호 1호로서 남보다 선진적인 제도를 빠르게 받아들여 농가에 접목하고 수출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과채류를 가지고 매년 100% 성장을 거듭한 끝에 312억 원(2007년 6월 결산 기준)의 매

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로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일도 쉽지 않다.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된다는 점은 사계절 지속적으로 생산과 납품 등 매출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다. 또한 이런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원, 그리고 유통을 위한 조직이 갖추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차별화된 브랜드(햇살마루 등)와 선진 유통시스템으로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보면,

도입기인 1998년 논산배수출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미국 배 수출단지 지정 승인(USDA-APHIS)을 받아 1999년 황금, 신고, 추황배 520톤(\$1,500,000)을 수출하였다.

정립기인 2000년부터 2005년까지로 2000년 최초 자본금 1억3천만 원으로 (주)논산농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대지 1,500㎡, 선과장 2동 600㎡, 저온저장고 13동 230㎡을 준공하였으며, 미국에 배 630톤(\$1,506,000)을 수출하였다. 현재 자본금은 14억3천만 원으로 증가되었다. 2001년에 동경, 오사카에 대리점을 체결하여 일본에 딸기, 토마토를 수출 개

시 하여 일본 처녀 수출 ₩151,000의 실적을 나타냈으며, 미국에 배 640톤(\$1,470,000)을 수출하였다. 2002년 미국, 대만에 배, 사과 1,100톤(\$2,450,000)을 수출하였으며, 공동선별포장에 의한 차별화된 브랜드(후레시아, 햇살마루 등) 출시로 국내 유통시장에 판매장을 구축하여 3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2003년 저온저장고, 선과장 증축 130㎡, 서울하남 물류센터 150㎡ 설치, 미국과 대만에 배, 사과 775톤(\$1,574,000)을 수출하였으며, 토마토, 수박, 멜론, 배, 사과 국내유통을 합하여 6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2004년 농림부 산지



과채류 세척시설

유통전문조직에 선정되었으며, ISO9000 업체 인증획득, 자재보관창고 50㎡ 증축, 미국, 대만, 일본에 배, 사과, 매론 1,500톤(\$3,000,000)을 수출하여 국내 유통을 합해 11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2005년 농림부 공동마케팅 전문조직으로 선정되었으며, 매출은 170억 원 을 기록하였다.

성장기인 2006년에서 2007년은 매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2006년 농림부 우수농산물(GAP) 인증기관 선정, 그리고 충남 대학교, 중앙대학교, 중부대학교 산학연 업무협약 체결, 자체 ERP전산 시스템을 구축

하였으며, 매출은 196억 원을 기록하였다. 2007년 건양대학교와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중소기업청 이노비즈 인증 획득, 친환경 인증기관 신청 등을 하였으며, 매출액 312억 원(2007년 6월 30일 기준)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성장의 동력은 이 회사가 수출뿐 아니라 국내 유통에서도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통업체로 앞장서 국립품질관리원 인증 농산물 위주로 대형 유통업체를 공략하여 전국적으로 사계절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산지유통센터가 지



과채류 포장라인



출입구 에어샤워실



저온저장시설



CA저장창고



컨테이너 출하시설 및 저온저장 시설

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같은 시도는 이 회사의 특유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출에 있어서도 미국, 대만, 일본, 홍콩, 뉴질랜드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이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2000년 무역의 날 대통령 일백만 불 수출탑을 수상 하였으며, 2001년 2003년 농림부장관

농업, 농촌 발전기여 표창장 수상, 2003년 배, 복숭아 수출 감사패(조치원농협), 수박 유통기여 감사패(논산 수박연구회), 2005년 농산물유통교육기여 감사패(농산물유통공사 사장), 농산물 유통체계 구현 감사패(농림부장관), 2006년 대통령 농업경영혁신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 회사의 주요 시설 및 장비를 보면, 우선 대지 면적이 1,642㎡으로 2007년 매입

한 34,000㎡ 까지 합하면 규모면에서도 대단히 큰 회사임을 알 수 있다. 건평 948㎡, 선과장 668㎡, 저온저장고 270㎡, 예냉시설 15㎡, CA저장 창고 58㎡, 토마토세척 120㎡과 주요장비로는 선과기(비파괴당도) 4조, 지게차 4대, 비파괴 당도기 2대, 농약간이 분석기 1대, 오존소독기 1대, 굴절당도측정기 2대, 농산물 수송 차량 5대, 래핑기 외 12종 등 장비 측면에서도 다양한 보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방울토마토 자동계량 포장시설 1조, 완숙토마토 그물망 자동포장기 1조, 물류기기 세척시설 1조, 세척 부산물 처리시설 1조, 컨테이너 상하차 처리시설 1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전문 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으로 충남대학교, 중앙대학교, 중부대학교, 건양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으로 건양대학교와 연구원 9명으로 2007년 6월 설립하여 3년에 걸쳐 2억 원을 지원 받아 농산물 품목별 저장성 향상을 위한 CA 저장기술 개발사업, 과채류 선과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농산물 선과 기술 개발사업, 농산물 신선 편의를 위한 친환경적 세척 기술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대학과도 산학연 연구로

과채류 수확 후 저장기술개발, 세척 선별 기술개발, 가공식품 기술개발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논산이라는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고급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으며, 전문 인력 보유 측면에서 박사 1명, 석사 2명, 학사 5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상근 직원이 본사 29명, 용인물류센터 외 2명으로 31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단순 작업자까지 고려하면 50여명의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듣기 시작한 것은 충남대, 한남대가 산학연 클러스터로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특히 충남대에 관련시설을 두고 연구·보급한 2005년부터 이 제도가 빠르게 보급되어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7년 5월 31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 제 4회 농식품 위험정보교



자체 제작한 GAP 영농기록 일지



친환경 벼 재배지

류회 발표에 의하면 전체 농산물 중 5%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매우 엄격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써 위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등록취소 등), 과태료부과(300백만원 이하),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 다른 제도보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농가들이 쉽게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이 회사는 회사 자체에 GAP인증기관(제21호 2006.11.15)을 두고, 농가에 자체 GAP 영농기록 일지를 배포하고 그 기록을 정기 점검, 자체 전산망과 연결한 후 농가가 쉽게 GAP에 접근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7년 6월말 현재 472농가 인증, 인증면적 2,890,630㎡, GAP생산계획량 13,714톤으로 GAP생산농산물로 200억 원의 매출 목표를 잡고 있다.



토마토 입고 제품

이 회사의 장점은 생산농가가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사계절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충남대 생명공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 자체 주문한 CA저장 창고는 완전 밀폐 차단 장치를 한 6칸의 CA저장 창고에 약 50톤의 농산물을 저장하여 공급 물량을 저장하여 시중 가격의 변동 없이 안정된 가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운영에 커다란 힘이 될 뿐 아니라 농가 소득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은 신선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

라서 적기에 수확하여 빠른 배송과 보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산부터 출하까지 각 단계별로 당도 등 검사하여 유통과정 중에 변질을 막기 위하여, 특히 수출에 있어서 신선도 유지제인 에틸렌스톱을 사용하여 변질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2007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하여 30억 원을 지원받아 회사 앞 토지를 34,000㎡을 매입하여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로부터 최첨단의 기술과 과채류 종자를 받아 유리온실을 만들어 새로운 품종

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도 방울토마토의 일종인 품종을 시험 생산하고 있었다. 하나를 따서 입에 넣어보니 무르지 않고, 당도도 높아 시중에 내 놓으면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우리 농업도 특히 친환경 농업도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업은 전통농업으로의 회귀를 생각하였는데, 이 회사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 시험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농업은 일찍이 없었던 무한 경쟁의 시험대에 서 있다. 한·칠레 FTA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수입과일이 본격적으로 들어 왔고, 과채류 가격은 올해 기준으로 30%이상 폭락을 하였다. 특히 토마토, 수박, 복숭아, 포도 등 연쇄적인 가격 하락을 가져왔다.

그리고 2007년 한·미 FTA가 협정되어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직 본격적인 교역도 시작하기 전에 축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네델란드산 방울토마토 시험재배지



GAP 방울토마토 생산 농가

쳐한 우리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농민은 체감하기 어렵다. 친환경 농업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친환경 쌀은 급격히 늘어나는 생산량에 비해 소비는 증가되지 않아 일부 농협에서는 2005년도 생산분도 창고에 보관하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들판에는 2007년도 수확하게 될 친환경 벼들이 쭉쭉 자라고 있다. 벼가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벼 스스로 무르익어 고개를 점점 숙이고 있다. 마치 절망에 처해

있는 농업을 보는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수천 년 우리 농업을 지켜온 우리 농민들은 신자유주의 시대, 시장주의(개방화) 속에서도 들판의 민들레처럼 다시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찾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몸에 최고 좋은 것이다. 늘 우리는 말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 하고 수입을 적게 하는 것이라고. 특히 농산물을 적게 수입하는 나라가 선진국

이다. 선진국일수록 식량 자급률이 100%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현재 25% 이하다. 쌀을 제외하면 4%밖에 되지 않는다. 쌀은 지난 WTO 협상 시 의무 수입량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또한 건설공사와 도시화로 매년 여의도 면적만큼 농지가 전용되고 있어 우리의 식량 수급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와 와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하는 농업 기업, (주)논산농산물수출물류센터농업회사법인을 주목한다. 친환경 농업이 우리의 농업에서 살 길임을 제시하는 기업이다.

때마침 필자는 중국과 인도를 방문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물 부족, 거대 인구에 의한 수질, 토양 오염이 농업을 위기로 몰아가는 현장을 보고 왔다. 특히 식량의 세계화에 의한 토착 농민의 어려움은 우리보다 더 했다. 그리고 언론 기사에 의하면 중국과 인도의 상류층은 고품질 유기농산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먹고 있다 한다. 오염된 수질과 토양에서 생산된 자국 농산물보다 품질이 인증된 외국의 우수한 농산물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외국으로 우리의 고품질 농산물을 보다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이다. 그 선두에 이 회사가 있다는 믿음을 현실로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농산물이 우리의 자동차나 전자제품처럼 세계 각국에서 선전하기를 바라며, 위기의 한국 농업, 친환경 농업으로 수출에서 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